



즉시 배포용: 2023년 7월 11일

KATHY HOCHUL 주지사

**ICYMI: HOCHUL 주지사의 뉴욕 타임즈 특별 기고문: CLARENCE THOMAS와 BRETT KAVANAUGH, 가정 폭력 생존자들의 삶의 변화에 기여**

오늘 뉴욕 타임즈는 가정폭력 생존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가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Kathy Hochul 주지사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특별 기고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70세가 되셨을 때 독특한 생일 소원이 생겼어요. 그녀는 파티나 케이크 대신 가정 폭력 생존자와 그 자녀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를 여는 데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생일 선물이 학대 피해 생존자들을 위해 평생을 싸워온 여정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정은 '구타당한 여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생존자들이 의지할 곳이 거의 없던 197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생일 몇 달 후, Kathleen Mary House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어머니 Kathleen Mary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Kathleen Mary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생존자들을 위한 그녀의 평생 활동이 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정 폭력의 영향은 한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가정 폭력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제가 내년에 가정 폭력 생존자를 보호하는 총기 안전법을 지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례인 미국 대 Rahimi 사건의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Rahimi 사건을 심리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사건은 최근 법원의 수정헌법 2조 판결인 뉴욕주 라이플 앤 피스톨 협회(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대 Bruen 사건에 근거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Clarence Thomas 대법관이 이끄는 다수의견은 21세기 총기법은 소총이 일반적인 총기였던 이전 시대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세기가 넘도록 유지되어 온 뉴욕의 총기 은닉 휴대법을 뒤집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제가 주지사로서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던 중요한 도구를 박탈했습니다. 이 결정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치명적인 총기류가 우리 지역사회, 사업체, 술집과 식당, 심지어 봄비는*

지하철 차량에 넘쳐났을 것입니다. 빗나간 말 한 마디나 날카로운 팔꿈치는 즉시 치명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Rahimi**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치명적인 총기가 가정 폭력 생존자들의 집에 넘쳐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5순회법원(**Fifth Circuit**)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후 법원에 상정됩니다. 제5순회법원은 정부가 법원이 가정 폭력 보호 명령을 내린 학대자가 치명적인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학대 생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을 뒤집음으로써 가정 폭력 명령을 받은 개인에게 총기를 소지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법률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Thomas** 판사가 **Bruen**판사의 판결 사례에 초점을 맞춘 주장을 선례로 삼아 오늘날 가정폭력 생존자에게는 대부분의 여성이 투표는커녕 집 밖에서 재산을 소유하거나 일할 수 없었던 18세기에 받았던 보호만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내셔널 인티메이트 파트너 및 성폭력(**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약 41%와 남성의 26%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성폭력, 신체적 폭력 또는 스토킹을 경험했으며 평생 동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살인 피해자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며, 여성 살인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또는 이전의 남성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살해됩니다. 이곳 뉴욕에서는 매년 약 80,000건의 폭행, 성범죄, 보호 명령 위반과 같은 심각한 범죄가 주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에서는 살인 사건 5건 중 약 1건이 가정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생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총기를 규제할 수 없다는 위험한 제5순회법원(**Fifth Circuit**) 이론에 기댈 수도 있고, 총기가 위험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연방법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 변론이 제기되기 전에는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판결할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Bruen**이 세운 선례는 매우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Bruen**의 사건에서 찬성표를 던진 법원의 과반수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Thomas** 대법관은 역사적 논쟁에 계속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참여한 **Brett Kavanaugh** 대법관의 동의 의견은 "수정헌법 2조는 적절히 해석하면 '다양한' 총기 규제를 허용한다"고 언급하며 기본적인 보호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동의는 **Bruen**에 대한 뉴욕의 대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뉴욕주의 100년 된 총기법이 뒤집힌 후, 저는 훈련 및 총기 면허 요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에 서명하는 등 총기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회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2년 봄, 우리는 우리 주의 레드 플래그법(**red flag law**)을 강화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가정 폭력자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총을 멀리하고 버펄로와 텍사스 주

우발대에서 일어난 비극을 가능하게 한 허점을 없앴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9,000건의 극단적 위험 보호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이전 2년 반 동안 1,400건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Rahimi** 사례에서 법원의 판결 범위에 따라 이러한 보호 조치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잠시 급증한 후, 뉴욕의 총기 수준은 점차 꾸준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총기 관련 사망률이 가장 낮은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공공 안전이 주지사로서 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드렸으며, 저는 총기 폭력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제 불능의 극단적인 대법원은 **Bruen**의 총기 안전법을 극도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정 폭력 생존자들은 이제 **Kavanaugh** 대법관과 그의 동료들이 생존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헌법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된 것으로 간주하는지 알기 위해 두려움에 떨며 기다릴 것입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학대 생존자에 대한 사법부의 공격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지 상상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리고 모든 뉴욕 시민들을 대신하여 저는 정의를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